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정서적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지은진^{1*} 최지명² 김교현³ 권선중⁴ 박은진⁵ 이민규⁶

¹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 Wee센터 ²김해 한사랑병원 ³충남대학교 심리학과
⁴침례신학대학교 상담심리학과 ⁵대전 성모병원 ⁶경상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우울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탐색하고, 그 관계를 정서적 의사소통이 매개하고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경남과 충청지역 이주여성 134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한글 교실 및 문화 교실 담당자의 협조를 얻어 한국어, 영어, 베트남어, 중국어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측정도구 중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는 적절한 측정도구가 없어 선행연구를 통해 개발하였고, 우울은 CES-D 척도를, 정서적 의사소통은 K-MSI의 하위문항 중 일부(AFC)를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검증 결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정서적 의사소통은 부적으로 관계하고 있었으며 우울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고, 정서적 의사소통과 우울과는 부적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aron과 Kenny(1986)의 회귀분석에 따른 매개효과 검증 결과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적 의사소통이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한국 문화에 보다 건강하게 적응하는 데에 한국인 남편의 친밀한 태도 및 비언어적인 부분의 소통이 중요하게 작용함이 검증되었으며, 관련 기관에서도 이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제한점과 연구과제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주요어: 국제결혼 이주여성, 문화적응 스트레스, 우울, 정서적 의사소통

[†] 이 연구는 한국마사회(KRA) 공익성기부사업의 자료를 일부 활용하였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지은진, (650-826)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2로 25-32 통영교육지원청 Wee센터, Tel: 055-650-8005, E-mail: ensim@hanmail.net

한국은 전통적으로 단일민족국가로서 인식되어 왔으며 이러한 전통은 오랜 세월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나 결혼이주민, 중국 동포, 탈북자 등과 같이 다양한 배경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유입되면서 이전과 다른 사회상을 만들어 가고 있다. 특히 국제결혼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1990년대부터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여성과의 국제결혼의 비중이 커져왔고, 2000년 이후에는 동남아 지역의 여성과 농촌 남성과의 국제결혼의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2009년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과의 혼인은 총 33,300건으로 전년에 비해 2,900건 감소한 수치를 보였으나, 혼인 비중이 10.8%로 2004년 이후 10%대 이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우리나라에 이주여성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인구통계학적 구조의 변화(양순미, 2006), 농촌지역 남성이나 도시 저소득층 남성들의 혼인의 어려움(홍달아기, 채옥희, 2006), 생산인구의 부족으로 인한 노동인력 유입(구차순, 2007) 등으로 이해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소(2009년 9월30일 기준)에서 실시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한국체류 총 국제결혼 이민자는 167,090명으로 집계되었다. 이중 이주여성의 수는 149,853명으로 나타났으며 2000년도에 비하여 약 16배 정도 증가한 수치이다. 이 중에서 한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41,417(24.8%)명이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은 125,673(75.2%)이었다. 국적별로 보면, 한국계중국인(조선족) 33,204명, 중국인 33,468명, 베트남 29,985명, 필리핀 6,193명, 일본 5,120명, 캄보디아 2,984명, 몽골 2,304명, 태국 2,075명, 미국 1,619명, 기타 8,245명이다.

국제결혼 증가와 함께 이혼율도 증가하고 있는데, 2002년도 국제결혼 이혼건수는 1,744건과 비교하면 2008년에는 11,255건으로 약 16배 이상이 증가하였고, 현재(통계청, 2009년)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율은 45%이상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2007년 현재 총 우리나라의 이혼건수는 124,590건으로 2006년 125,032건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나 국제부부의 이혼율은 오히려 늘어났으며 그 중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와의 이혼은 5,794건으로 전년 대비 44.5% 증가하였다.

국제결혼 이혼건수가 많은 이유는 다양하게 설명될 수 있으나, 국제결혼이 무엇보다도 상업적 이윤추구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결혼중개업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2005년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중개는 13.4% 이내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유사중개행위까지 포함 시, 실제로는 50%이상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국제결혼이 상업적 이윤추구 수단으로 악용되어 결혼당사자의 인권침해, 결혼 후 갈등, 국가이미지 실추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현실이다.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에 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으로 ‘외로움’ ‘문화차이’ 그 다음으로는 ‘자녀문제’ ‘경제문제’ ‘언어문제’ ‘가족갈등’ ‘주위의 시선이나 태도 등을 의식하는 것’ ‘음식이나 기후’ 등으로 조사되었다(설동훈 외, 2006; 홍미기, 2008년에서 재인용). 기존 연구에서는 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와 관련된 변인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부부 적응에 영향을 미치며 최지명(2007)은 의사소통방식과 정서적 의사소통, 사회적지지 변인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문화적응 스트레스, 우울, 정서적 의사소통의 관계

Berry(1997)는 문화적 정체감의 혼란과 문화적응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문화적응 스트레스라고 정의하고, 이는 낮은 정신건강(우울, 불안), 고립감, 소외감, 중대한 변화 그리고 정체성의 혼란 등을 유발한다고 하였다.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일반적인 특성을 종합해 보면, 이주자의 인구사회학적, 심리적, 사회적 특성으로 성, 연령, 교육수준, 거주기간, 이주 전 다문화경험, 이주국의 언어능력, 이주하기 전 이주국과의 접촉경험과 문화경험 등이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남성보다 여성이 더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Berry et al., 1987; 정기선, 한지은, 2009; 김은재, 2010에서 재인용).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은 낯선 나라에 정착하여 새로운 환경과 문화, 다른 언어 등으로 인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겪으면서 동시에 사회적 차별과 냉대, 인권 침해,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과의 갈등을 경험하면서 상당한 신체적,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즉 남편이나 시부모들이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에게 가정 내에서의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일방적인 적응만을 요구함에 따라 이들은 심리적 긴장과 압박, 갈등상황에 몰리게 된다. 이들의 한국 정착과정에서 야기되는 불안이나 우울 등은 높은 신체화 증상, 소외감, 무기력감, 정체감 혼란 등을 동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낮은 수준의 정신건강에 직면하게 될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김오남, 2006). 박은진(2008)도 의사소통 문제, 자녀들의 성장에 따른 자녀양육문

제, 이질적인 문화차이로 심화되는 가족갈등 등은 이주여성들의 한국생활 적응 상에 불안이나 우울 등의 수많은 심리정서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국제결혼 뿐만 아니라 모든 부부관계에 있어 의사소통은 결혼 만족도와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이다. 의사소통은 가족 간 친밀감과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며,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잘 하는 의미를 넘어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을 지각하고 상황을 적절하게 표현하며 상대를 존중하는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다(김영애, 2006). 그래서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부부 결혼만족도에 대한 연구가 많으며,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한국인 남편과의 원만한 결혼생활을 위해서도 원활한 의사소통은 무엇보다 전제되어야 할 문제이다.

이에 결혼만족도에 대한 이론적 접근 중 관계성 이론에 따르면, 부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의사소통이나 관계의 질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즉 결혼생활에 많은 갈등 요인이 존재하지만, 갈등요인 그 자체보다 갈등을 조정해나가는 방법이 중요하며 그 과정과 맥락이 되는 의사소통이나 관계의 질적 측면이 중요하다고 하였다(Busby, Holeman & Taniguchi, 2001; 조혜선, 2003; 이정숙, 2009). 홍미기(2009)는 국제결혼 부부간의 의사소통은 단순히 의사소통만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적인 성격을 의미하며, 상호간의 말에 대한 의미전달 이상의 관계형성과 문화적 이해까지 포함하는 맥락으로 해석되며 이는 결혼만족도 및 이주여성의 심리적 건강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경남과 충청지역 이주여성을 대

상으로 이들의 주관적 안녕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우울과 기존 연구에서의 의미 있는 변인과의 관계성을 알아보고, 정서적 의사소통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지니는지 검증하고자한다.

방 법

참여자

자료수집절차. 경남, 충청지역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글교실 및 문화교실(경남지역-사천시 종합복지관, 진주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통영 가정상담소, 함양 시민연대, 합천군청. 충청지역-당진 문화원, 대전 대화동 성당, 대전 모이새, 대전 빈들교회, 대전 성폭력 상담소, 천안 모이새, 청주 이주여성 인권센터) 담당자의 협조를 얻어 설문을 실시하였고 국제결혼 이주여성용 설문지는 한국어, 영어, 베트남어, 중국어 4개 국어로 배포되었다.

또 응답자가 직접 설문을 읽고 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베트남인의 경우 문맹률이 높거나 설문 내용을 이해 못하는 경우도 있어 한글교실 교사의 도움을 받아 대화를 하며 완성하는 방식으로 도움을 받았다. 전체 질문지에 응답한 총 인원은 경남 80명, 충청 149명 전체 229명으로 이중 불성실하게 응답하였거나 설문지를 완료하지 않은 사람을 제외하고 134부의 설문지가 최종 자료에 포함되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보면, 필리핀(39%) 베트남(32%)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몽골 우즈

베키스탄 순으로 한국인 남성과 국제결혼을 하였다. 한국국적 취득에 있어 50%정도가 국적을 취득하였다고 응답했으며, 학력에 있어 고졸이 31%로 가장 많았고 대졸 여성도 30% 정도 나타났으며 특히 필리핀 여성의 경우 전반적으로 학력 수준이 높았다. 나이에 있어 30대가 53%로 가장 많았으며 20대 40대 순이었고 10대도 4.3%로 나타났다. 결혼 기간은 1~3년이 가장 많았고 3~6년도 24%로 그 뒤를 이었으며 6년 이상 결혼기간을 유지한 경우도 22%를 차지하였다. 결혼 경로를 보면 아는 사람의 소개가 33%로 가장 많았고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결혼했다는 응답도 25%를 차지했으며 종교단체를 통해서 혼인이 성사된 경우도 22%정도 되었다. 국제결혼 부부의 월평균 소득은 101만~150만원이 가장 많았고(26%), 151만~200만원이 그 뒤를 이었으며 201만~300만원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대략 18% 정도 되었다. 함께 거주하는 가족구성원을 보면, 부부와 자녀는 44%로 가장 많았으며 부부와 자녀를 비롯하여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경우가 36%로 나타났고, 시부모 이외에 시댁식구와 함께 생활하는 국제결혼 부부도 4.5%를 차지하였다.

측정도구

문화적응 스트레스. 선행연구를 토대로 척도를 개발하였으며, 요인분석 결과 고유가가 1보다 큰 요인이 1개(eigenvalue=2.06) 추출되었으며 단일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변량은 41.24%로 나타났다. 문항분석 결과 문항-전체 상관이 .25~.60으로 나타나 수용할 만 했다. 총 6문항으로 구성하였는데, '나는 한국어 실력이 부족해서 한국인과의 의사소

통이 원활하지 못하다' '한국 사람들은 내 나라의 문화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 '나는 한국음식이 입에 맞지 않다' '나는 한국어실력이 부족해서 내 생각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한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한국의 문화가 많다' '한국식구들이 내 나라의 음식을 좋아하지 않는다'이다. 리커트식 4점 척도이며,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는 .62였다.

부부간 정서적 의사소통. 부부간 정서적 의사소통을 측정하기 위해서 Snyder(1981)가 개발한 결혼만족질문지(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 MSI)를 기초로 우리나라 부부들의 결혼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해 만들어진 K-MSI(권정혜, 채규만, 1991)의 하위문항 중 정서적 의사소통 불만족 척도 13문항 중 7문항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구체적 문항은 '남편은 내 기분과 생각을 잘 이해한다' '남편은 자기의 기분과 생각을 나에게 솔직하게 표현한다'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남편은 내 기분을 좋게 해주려고 노력한다' '남편은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 '남편은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 '남편에게 내 기분이나 걱정을 표현하고 나면 마음이 편해진다' '남편보다 친구에게 속마음을 말하기가 더 편하다'이다. 리커트식 4점 척도로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81이었다.

우울. 우울은 전경구, 최상진, 양병창(2001)이 한국어로 표준화한 한국판 CES-D 척도 중 역채점 문항을 제외(다른 문항들과 상관이 떨어진다는 기존연구 결과)하고 1, 3, 4 요인 중 요인 부하량이 높은 문항으로 선정하여 총 4문항('슬픔을 느꼈다' '하는 일마다 힘들게 느껴졌다' '갑자기 울음

이 나왔다'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리커트식 4점 평정척도로 구성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81이었다.

분석 방법

SPSS 18.0을 사용하여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하였고, 매개효과는 Baron과 Kenny(1986)의 접근법을 따랐다.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은 Sobel 검증으로 하였다.

결 과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정서적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표 1에서는 각 변인들의 평균(표준편차), 상호상관이 제시되어 있다.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정서적 의사소통은 부적 상관관계에 있으며 우울과는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서적 의사소통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우울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간의 관계에서 정서적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Baron과 Kenny(1989) 방법으로 알아본 결과를 표2에 제시하였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립변인인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종속변인인 정서적 의사소통을 유의하게 설명하고($\beta = -.183, p < .05$),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우울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94, p < .05$). 이로써 매개효과가 성립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이 충족되었다. 마지막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정서적 의사소통을

독립변인으로 놓고 우울을 종속변인으로 둔 회귀식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beta=.157, p<.05$) 및 정서적 의사소통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beta=-.278, p<.01$)이 모두 유의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보다 세 번째 단계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게 감소하여($\beta=.194 \rightarrow \beta=.157, \text{Sobel } Z=1.68, p<.05$), 정서적 의사소통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 사이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국제결혼의 초창기 형태는 한국 전쟁으로 인하여 한국에 주둔한 미국 병사와 한국인 여성의 결혼이었으며, 이후 급격한 경제력 신장과 더불어 외국인 유입이 늘었고 한국인의 해외진출이 늘면서 국제결혼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1990년 이후부터는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낮고, 높은 수준의 문

화생활을 하기 어려운 농촌 남성이 늘면서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의 일환으로 국제결혼 비율이 증가하였다.

국제결혼 가족에 대한 지원은 초기에는 지역 내 NGO나 일부 사회복지 관련기관에서 한국어나 한국문화를 가르치면서 외국인 배우자들의 인권이나 의료 등을 어렵게 지원해오던 형태였으나, 최근에는 결혼이민자여성 지원센터와 같은 정부 주도 또는 정부지원 체계에서 한국인 가족을 대상으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교육으로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한국문화 습득이나 이해에 초점을 둔 교육차원에서 부부교육이나 심리적응에 중점을 둔 심리사회적 프로그램도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 시행에 있어, 남편이나 시어머니를 비롯한 한국인 가족의 참여율은 저조한 수준이고, 프로그램 효과성 부분에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외국인 아내가 아닌 한국 남성 배우

표 1. 변인의 평균(표준편차) 및 상호상관

| | 평균(표준편차) | 문화적응 스트레스 | 정서적의사소통 | 우울 |
|-----------|-------------|-----------|---------|----|
| 문화적응 스트레스 | 15.72(3.33) | 1 | | |
| 정서적 의사소통 | 24.42(5.00) | -.183* | 1 | |
| 우울 | 7.24(3.04) | .194* | -.296** | 1 |

* $p < .05$, ** $p < .01$

표 2.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에 대한 정서적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 단계 | 변인 | B | β | R ² | F |
|---------------------|--------------------|-------|---------|----------------|--------|
| 1단계 (독립→ 매개) | 문화적응스트레스→ 정서적 의사소통 | -.278 | -.183* | .034 | 4.04* |
| 2단계 (독립→ 종속) | 문화적응스트레스→ 우울 | .177 | .194* | .037 | 4.67* |
| 3단계 (독립, 매개→ 종속) | 문화적응스트레스→ 우울 | .148 | .157* | .119 | 7.55** |
| | 정서적 의사소통→ 우울 | -.174 | -.278** | | |

* $p < .05$, ** $p < .01$

자의 심리적 문제에 초점을 둔 연구가 많이 나오고 있으며, 특히 의사소통 능력이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이는 언어적 의미 파악을 넘어 관계적 측면까지 포함하고 있고 부부간 의사소통의 기술 부족, 회피적 대화 양상, 부정적 문제해결은 결혼 만족도와 여러 심리적 문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부부간 정서적 의사소통과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는 ‘정서’에 기초한 현상연구에 관심을 둔 사람들이 직면하는 정의적·조작적 어려움 때문일 것이다(홍성례, 유영주, 2000). 그러나 의사소통의 질적 측면, 감정 표현의 중요성, 정서적 지지와 관련해서는 여러 연구들이 있다. 김민녀(2004)는 부부간 의사소통은 상호교류 과정으로써 의미를 공유하는 과정이라고 보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공통된 해석은 부부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켜 결혼만족에 기여하지만 상이한 해석은 오해를 일으키며 만족감을 저하시키고 서로간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며, 특히 감정과 소망에 대한 표현과 친밀감을 적극적으로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우울을 비롯한 정신건강에 대해 한국어 능력이 부족할수록, 미래에 대한 기대가 낮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클수록, 남편과 시부모 등 시댁식구들의 정서적 지지가 낮을수록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김오남, 2007), 지속적인 대화단절, 무시하는 어투, 야유 및 강요, 이러한 것을 암시하는 몸짓이나 태도,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와 관련된 이야기 등은 이주여성의 무기력, 우울 등을 일으킨다고 보고하였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우울에 대한 여러 연구에

서는 이들이 한국사회 정착과정 속에서 일반인들보다 사회적, 정서적 지지망의 부족과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요인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으며, 우울은 부정적인 사고, 의욕상실, 집중력 장애, 수면장애, 대인관계 능력과 일상생활의 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끼쳐 삶의 질을 저하시키며 여성결혼이민자의 개인건강은 물론 가족과 사회의 안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이한동, 2007).

본 연구결과에서도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심리적 건강, 즉 우울에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의미 있는 변인이며,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의 언어를 비롯한 음식, 인식의 차이, 한국인 가족들이 자신의 문화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남편과의 정서적인 부분에서의 원활한 교류, 친밀감이 매개 역할을 함으로써 한국인 남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외국인 아내의 외로움, 소외감, 고립감 등의 심리적 불편과 어려움을 헤아리고 어루만져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이주여성이 한국문화에 적응하는 것에 상당한 문화적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들의 심리적 안녕감과 밀접한 우울에 있어 남편의 언어적 비언어적인 애정과 관심 표현이 매우 중요하며, 가족 내에서 존중받고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는 것이 이후 한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도 관련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각 지원단체에서는 이주여성의 적응에 초점을 둔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과 더불어 한국 남성배우자에 대한 의사소통 기술향상 프로그램과 외국인 아내의 문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한점 및 앞으로의 연구과제

첫째, 결혼 이주여성의 설문조사에 있어 베트남의 경우 문맹률이 높아 한글교사의 도움을 얻어 실시하여 설문문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응답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다. 두 번째로는 경남과 충청지역의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세 번째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관련한 척도의 신뢰도가 수용할 만한 수준이나 더 높은 수준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다. 네 번째로 설문조사 당시 한국인 남편에 대해서도 시행하였으나, 그 참여자 수가 적어 본 연구에서는 제외되었으나 이들의 스트레스나 심리적 안정감에 대해 함께 조사되었더라면 부부갈등이나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 보다 실질적인 기초자료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상당수가 시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이 느끼는 외국인 며느리에 대한 스트레스 정도나 문화 차이 등을 검증하는 작업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 번째로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관련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실제적으로 운영해보고, 차후 그 효과성에 대해서도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구차순 (2007).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권정혜, 채규만 (1991). 한국판 결혼만족도 검사의 표준화 및 타당화 연구 I. 한국심리학회지:임상, 18(1), 123-139.
- 김민녀 (2004). K-MSI를 이용한 기혼자의 결혼만족도: 가족생활 주기를 중심으로. 성신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오남 (2006). 이주여성의 부부갈등 결정요인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오남 (2007).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의 정신건강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2(3), 45-73
- 김은재 (2010).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여성결혼 이민자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은진 (2008).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과 스트레스 그리고 심리적 건강.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법무부 (2009). 국내 체류 외국인 현황.
- 설동훈, 이해경, 조성남 (2006).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 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양순미 (2006). 농촌국제결혼부부의 적응 및 생활실태에 대한 비교분석. 농촌사회, 16(2), 151-179.
- 이정숙 (2009).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 영향요인 분석.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한동 (2008).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과 정신건강: 스트레스와 우울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전경구, 최상진, 양병창 (2001). 통합적 한국판 CES-D 개발. 한국심리학회지:건강, 6(1), 59-76.
- 정기선, 한지은 (2009). 국제결혼이민자의 적응과 정신건강. 한국인구학, 32(2), 87-114.
- 조혜선 (2003). 결혼만족도의 결정요인. 한국사회학, 37(1), 91-115.
- 최지명 (2007). 국제결혼 부부의 의사소통방식, 정서적 의사소통, 사회적 지지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통계청 (2009). 국제결혼 현황.
- 홍달아기, 채옥희 (2006). 베트남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적응 사례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6(1), 61-73.
- 홍미기 (2009). 결혼이주여성이 인지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부부적응에 관한 연구. 사회적 지지와 부부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홍성례, 유영주 (2000). 부인의 정서적 지지와 남편의 결혼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2), 61-76
- Berry, J. W., Kim, U., Minde, T. & Mok, D.(1987). Comparative studies of acculturative stres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1, 491-511.
-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46, 5-68.
- Busby, M. D., B.T. Holman, and N. Taniguchi (2001). Relationship Evaluation of the Individual, Family, Culture, and Couple Contexts. *Family Relations*, 50, 308-316.
- Snyder, D. K. (1981). *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 (MSI) Manual*. Los Angeles: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

원고접수일: 2011년 11월 24일

게재결정일: 2012년 1월 16일

The Influence of Acculturation Stress of Immigrant Women after International Marriage on Depression: The Mediating Effect of Affective Communication

EunJin Ji¹

JiMyeong Choi²

Kyo-Heon Kim³

SunJung Kwon⁴

EunJin Park⁵

MinKyu Rhee⁶

¹WeeCenter

²Han-Sarang

³Dept. of Psychology

Tongyeong Office of Education

Hospital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⁴Korea Baptist Theological

⁵Mary's

⁶Dept. of Psychology

University

Hospital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orrelation of acculturation stresses in immigrant women with depression, and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s of affective communication between relationships. So I distributed the questionnaires in Korean, English, Vietnamese, and Chinese to 134 immigrant women of Gyeong-nam and Chung-cheong provinces. The psychological tests used in this research included the following: acculturation stresses scale, which developed through advanced researches, CES-D, and sub items (AFC) of K-MSI. The correlational analysis results indicated that acculturation stresses and depression we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affective communication, and acculturation stresses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depression. According to Baron and Kenny's method of mediating effects test, affective communication partially mediated in relation to the immigrant women' acculturation to depression. This result suggest that husbands' intimate attitude and nonverbal communication, which are significant on immigrant women' acculturation into Korean culture, with the necessity of related organizations' activating programs, as a result for this. Finally we discussed the limits and research tasks.

Keywords: Immigrating women into Korea after international marriage, acculturation stress, depression, affective communication